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관악구, '여성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비상벨 등 설치

○ 주요내용

■ 관악구는 '여성 안심마을 조성사업*'으로 여성 1인 점포에는 비상벨을, 여성 지적장애인에게는 배회감지기 지원

* 여성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여성의 행복과 안전' 구현을 목표로 관악구 거주 여성 1인 가구 등에 안심홈세트, 안심벨 등 안심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 관악구는 전국에서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28.7%로 가장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최근 '여성 1인 점포'에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 비상벨 설치 사업 추진
- 비상벨은 위급상황 발생 시 관악구 통합관제센터로 즉시 통화가 가능하고 112 긴급 출동이 가능하도록 연결하고, 특히 "도와주세요!"라는 육성으로도 비상 상황을 감지할 수 있어 버튼을 누르거나 할 필요 없이 신속히 신고 가능
- 구는 현재까지 101개소 점포에 비상벨을 설치했으며 올해에는 20개 점포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여성 점주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점포라면 누구나 연중 신청 가능

■ 여성 지적장애인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도 추진

- 배회감지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정 구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알람 전송
- 신청기간은 오는 9일까지로 만 12세에서 만 39세 여성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 청소년이면 신청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우선적으로 총 30명에게 지원할 계획
- 비상벨과 배회감지기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여성가족과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뉴스 소식-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요망

‘여성1인 점포’ 안심비상벨 지원

인터넷망을 이용한 무선비상벨 설치 지원
구청 관제센터를 통한 112 긴급출동 지원

사업대상 관악구 소재 여성1인 점주 단독 운영 점포
지원내용 인터넷망을 이용한 무선비상벨, 안심점포 현판 설치
지원대상 20개소
※ 안심비상벨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업소에서만 설치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연중(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
http://gwanak.go.kr(관악구청>뉴스소식>관악소식)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jss0116@ga.go.kr)
- 대상자 선정: 선착순(개별 문자통보)

신청·문의 관악구-관악구여성단체연합회 ☎ 02-879-6122

◆ 지자체
서울특별시 관악구

◆ 출처
뉴스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3_0001965839&cID=10201&pID=10200

◆ 일자
2022. 8. 3.

대구시, 「여성안전플랫폼 SISO」 메타버스 구축

주요내용

- 대구시는 최근 여성안전플랫폼 SISO(Safe Inside Safe Outside)의 메타버스(이하 ‘메타시소’) 구축을 완료, 오는 16일부터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및 체험운영
 - 시는 지난해 소방안전교부세로 여성폭력예방 콘텐츠(메타버스 제작 등) 개발비를 확보하여 수탁기관인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메타버스 제작용역 완료
 - 가상공간인 여성안전플랫폼 공간 ‘SISO’ 메타버스(이하 메타시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신종 젠더폭력에 대응하여 예방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며, 여성폭력예방 장비 등을 나만의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 동일하게 체험 실시
- 메타시소는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안전체험, 영상회의실, 오픈교육장 등의 공간으로 구성
 - 체험은 총 5종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정보 제공 및 퀴즈풀이, 시민이 안전한 화장실인 “초록화장실” 조성 체험, 불법촬영 예방 안심거울 체험과 골목길의 이상음원 시스템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도시철도 객차 내에서 매너다리 유지를 위한 넛지 효과 등 체험 가능
 - 메타시소 영상회의실은 소규모 그룹회의가 가능하며, 메타시소 오픈교육장에서는 폭력예방 관련 온라인 교육 진행
 - 여성안전 체험을 원하는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메타시소에 입장하여 여성안전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으며, 시는 9월2일과 3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여성UP 엑스포’에서 여성안전테마관을 메타버스존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메타시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지자체
대구광역시

◆ 출처
오늘경제
<http://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54>

◆ 일자
2022. 8. 11.



송파구, 잠전초 정문 앞 ‘송파형 침단 옐로카펫’ 9월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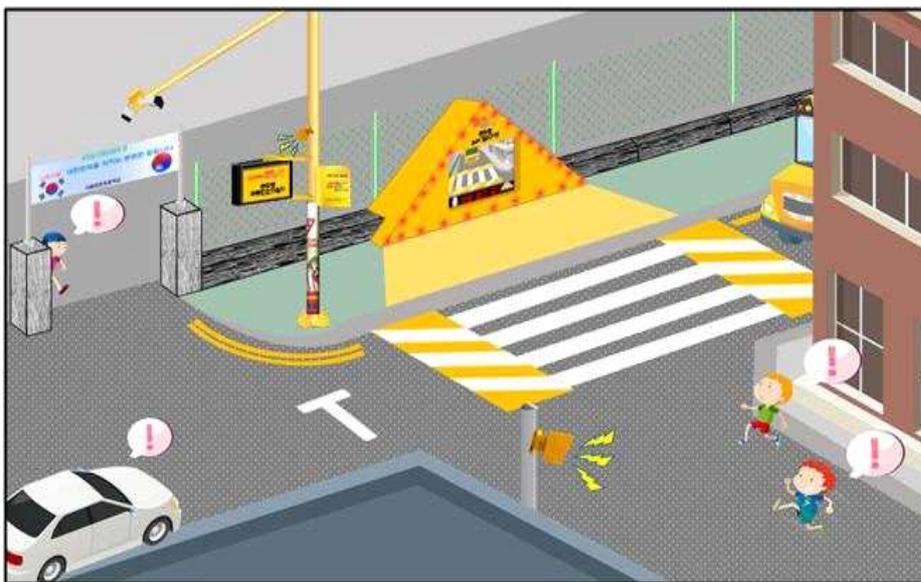
○ 주요내용

■ 서울 송파구는 9월 통학로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잠전초 정문 앞에 침단 장비를 도입한 ‘송파형 침단 옐로카펫’ 설치

- 사업대상지인 잠전초 정문 앞은 무신호 횡단보도로 보행 안전을 위해 현재도 옐로카펫이 설치돼 있으나, 주차된 차량과 건물 등으로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던 상황
- 전국 최초로 설치하는 ‘송파형 침단 옐로카펫’은 인공지능(AI) 카메라가 탑재된 교통안전 시스템으로, 카메라가 통행 차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접근하는 차량 영상을 옐로카펫 가벽 모니터로 보여주고, 가벽 테두리 달린 발광다이오드(LED) 전구와 초지향성 스피커로 보행자에게 접근하는 차량에 주의 내용 전달

■ 구는 잠전초교 앞에 ‘송파형 침단 교통안전지킴이’도 함께 설치하여 학교 밖으로 나오는 어린이에게 교문 위 모니터를 통해 ‘차량 접근 중!’, ‘좌우를 살피요!’ 등의 주의 문구를 표출해 사고 예방

- 이번 설치 때에는 ‘차량이 접근 중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 경고를 추가해 보다 직접적인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
- 구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중 두 시스템 설치를 완료해 무신호 횡단보도와 교차로로 운영되는 안전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에 힘을 기울일 계획



◆ 지자체

서울특별시 송파구

◆ 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817000047>

◆ 일자

2022. 8. 17.

세종시 “자연재난,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주요내용

■ 세종시는 최근 집중호우 등 빈번해진 자연재난에 대비해 시민과 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료 지원

-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등 9가지 자연재해에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유형·소득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에서 최대 87%까지 지원
- 또한, 일괄적인 액수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 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이 늘어나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개인 부담 감소
-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민영보험사 6곳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
- 시는 이와 동시에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해 시민이 직접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시민과 함께 생활 속 안전을 지켜나갈 계획

천안시, 노인 교통사고 막는다...안전 대책 강화

○ 주요내용

■ 천안시는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 노인보호구역을 늘리는 등 노인 교통안전 대책 추진

- 21일 시에 따르면 2020~2021년 천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74명 중 65세 이상은 25명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했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8명 중 65세 이상은 7명(38.8%)으로 확인
- 시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복지관, 경로당 등 610개소에서 4200여명을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 수칙, 교통법규 등 안전 교육 진행
- 올해 1억8400만 원을 들여 노인보호구역을 27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고 2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해 노인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계획
 -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30km로 낮아지며 보호구역 표지판, 노면 표시, 과속방지·무단횡단방지시설 등 안전 인프라를 설치할 예정
 - 또 기존 노인보호구역의 노후화된 노면표지 및 안내판을 개선하고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인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개선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
 -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과 함께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시 인센티브 지급
 - ※ 사고율이 높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10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 지급
 - 이와함께 반사띠가 부착된 지팡이, 형광 안전조끼를 지급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운전자가 노인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 출처

뉴스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8_0001982588&clD=10818&pID=10800

◆ 일자

2022. 8. 18.

◆ 지자체

천안시

◆ 출처

굿모닝충청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726>

◆ 일자

2022. 8. 21.

의정부시, 전국 최초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 주요내용

- 경기도 의정부시는 무단횡단 근절과 보행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지역 내 교차로 2곳(횡단보도 9면)에 전국 최초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 시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방지 대책이 매우 중요
 - 이를 위해 시는 신호기 연결 기준을 준수하고, 보행자 무단횡단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책의 일환으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도입
 - 그동안 관련 규정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설치 장소와 수량 등을 의정부경찰서와 협의해 전국 최초로 정식 운영 개시
 - 보행신호등의 ‘녹색 잔여 시간 표시기’는 의정부시 관내에만 1600여 개가 설치돼 있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보급돼 있지만, 보행자의 횡단 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는 경찰청 규격이 신설된 이래 아직 설치된 사례 전무
 -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는 보행자로 하여금 적색 신호가 끝나고 몇 초 후에 녹색 신호가 켜질지 알 수 있게 해 보행자의 신호 위반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 시는 이번 전국 최초로 설치·운영하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의 이용자 반응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살펴본 후 시 주요 교차로로 확대 설치할 계획
 -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시에서 지속 추진 중인 바닥형 보행 신호등, 횡단보도 보행 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설치와 더불어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출처 : 동아일보

◆ 지자체

경기도 의정부시

◆ 출처

시민일보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_code=1160293662347432

◆ 일자

2022. 8. 21.

서초구 “맨홀 사고 없도록”...108곳에 추락방지시설 설치

○ 주요내용

■ 서초구는 이달 중 강남역 일대를 포함해 저지대 유동인구가 많은 108곳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추진

-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맨홀뚜껑 바로 아래 그물이나 철 구조물을 설치해 뚜껑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하수도에 추락하는 것을 막는 시설로, 구는 이번에 설치하는 지역 외에 다른 침수 취약지역에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
- 서초구는 구 차원에서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선제적으로 설치하고 이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소요예산을 신청할 예정
-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역 일대에 빗물저류배수시설(대심도 터널)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구 차원에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긴급 시행할 수 있는 자체 대책 착수
- 상습 침수지역인 방배·양재동 전역 57만㎡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해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개 권역으로 나눠 다음 달부터 자체용역 실시
- 방배동과 양재동 일부는 빌라가 밀집된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으로, 방배동은 방배로 1.3km에 이르는 '하수암거' 공사를 4년에 걸쳐 완성했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빗물이 하수관의 용량을 초과하면서 역류로 침수했고, 양재동 일대도 양재근린공원에 빗물 저류조가 설치됐으나 집중 호우에는 역부족
- 구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로 침수 방지 사업을 진행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에는 서울시에 적극 요청할 계획
- 서초구 곳곳에서는 18개동 각 직능단체에서 활동하는 1400여명과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민관 응급복구단'이 빠르게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응급 복구는 99% 진행된 상황이고, 복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작업을 지속할 예정

◆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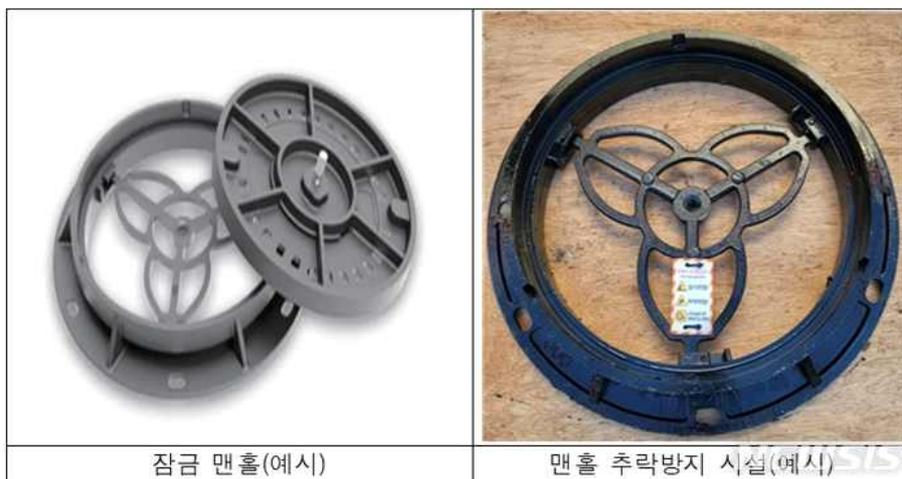
◆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1_0001985157&cID=10201&pID=10200

◆ 일자

2022. 8. 21.



잠금 맨홀(예시)

맨홀 추락방지 시설(예시)

제주, 3차원 데이터 기반 '가상 소방훈련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제주도는 각종 재난현장 출동 시 신속한 대응과 소방대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실 세계 대응체계' 사업인 건축물 3차원 데이터 구축 사업 등 추진
 - 이번 사업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취득과 복잡한 건물 구조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 이를 위해 항공 라이다를 활용해 제주도 전역을 18만 1506곳의 블록 형태로 구축해 건축물 대장 정보, 도로명주소 데이터 등 행정정보와 연계
 - 특히 중요시설물 70개소의 3차원 영상데이터 제공으로 재난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와 시설물을 신속하게 파악해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 가능
 - 구축된 3차원 건축물 실내·외 위험물시설물 데이터는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가상공간에 적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출동대별 훈련환경 설정, 훈련 상태 및 평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가상상황에서 실제 대상물을 배경으로 한 훈련을 할 수 있어 실시간 현장 대응 능력 향상
 - 또한, 소방활동 대상물의 주변 환경, 주출입문과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물 현황 등 소방활동 조사도 현장에서 손쉽게 가능
 - 모바일에서 시설물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 조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현장 출동과 관련된 출동시간 데이터, 119신고 및 민원데이터, 주변 혼잡도 데이터, 건물정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재난 시 대응이 가능한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체계 구축 추진
 - 이와 함께 3차원 건축물 소방시설물 데이터 구축사업과 병행 추진중인 가상현장 훈련 장소를 제주안전체험관에 설치해 소방대원들의 훈련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훈련 장소 개방을 통해 기존 안전체험과 연계한 실감형 안전체험 교육을 진행할 예정

◆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출처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444>

◆ 일자
2022. 8. 22.



〈3차원 객체(입체) 기반 건축물·위험시설물 데이터 구축 예시도〉

경주시, 자연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대 설치'

○ 주요내용

- 경북 경주시는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 시는 올 상반기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회관, 하천주변, 행정복지센터 등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7개소, 하천수위감시CCTV 4개소, 민방위경보시스템 3개소를 추가 설치
 -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시청 재난상황실에 마련된 통합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돼 재난상황 발생이나 우려 상황을 스피커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메신저 장치로 주로 재난상황에 취약한 읍면의 마을회관 등에 설치
 - 현재 시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65개소, 하천수위감시CCTV 28개소, 지진해일경보시스템 28개소, 민방위경보시스템 21개소, 지진가속도 계측기 2개소, 강우량측정시스템 15개소 등을 운영
 - 이에 시는 매년 유지보수업체와 합동으로 장비의 작동, 통신화선, 단말기 연결 상태, 주변 환경 등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
 - 경주시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더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경남도, 올해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3→10곳으로 확대

○ 주요내용

- 경상남도는 2022년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당초 3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추진
 - 이번 사업은 조명·방범시설 설치 등을 통한 불량주거지의 범죄 및 재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
 -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매년 3~4개 대상지를 선정해 현재까지 11개 시군, 29개 사업 추진
 - 시는 사업 추진을 통해 범죄예방 효과 뿐아니라 미관개선·지역 관광지 확보 등 각종 홍보 효과도 보고 있다고 평가
 - 올해는 지난 2월 사업이 선정된 김해시(고모마을), 의령군(중동마을), 고성군(고성시장) 등 3개소에 대해 디자인 설계가 완료돼 추진
 - 또 통영시 통영여중·고 등하굣길, 김해시 진례면 고모마을 사업 연장, 양산시 백동초등학교 등하굣길, 하동군 진교버스터미널 일원, 함양군 함양초등·함양여중·위성초등학교 일원, 거창군 아림고등학교·거창도립대학 일원 등 6개 시군 7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 예정

◆ 지자체
경상북도 경주시

◆ 출처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dxno=1589398>

◆ 일자
2022. 8. 22.

◆ 지자체
경상남도

◆ 출처
안전신문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44>

◆ 일자
2022. 8. 23.

동대문구, 안전차수문 설치...“폭우 인명사고 미리 막는다”

○ 주요내용

- 동대문구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라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 구는 이번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및 맨홀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돌봄서비스 확대 시행, 반지하주택 안전차수문 설치, 하수도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등 인명사고 예방 대책 추진
 - 기존 수해 관련 돌봄서비스는 공무원 1명 당 인접 돌봄가구 2~3가구까지 복수 지정이 가능했는데, 돌봄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 등 2명 이상이 1가구를 전담 관리
- 또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재해약자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차수문 설치
 - 안전차수문은 물감지 센서를 통해 40cm이상 침수 시 자동 경보 시스템이 발동되며, 하부는 차수판 기능을 하고 상부는 별도의 출입문으로 개폐할 수 있어 침수 시 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하지 못하는 불상사 예방
 - 특히, 구는 침수 시 자동 경보 발동과 더불어 해당 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돌봄 공무원과 구 상황실로 즉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안전차수문에 IoT센서를 추가로 설치해 신속하고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
- 하수도 맨홀뚜껑 열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도 맨홀에 추락방지시설도 설치
 - 추락방지시설은 호우 시 수량, 수압으로 인해 맨홀 열림이 우려되는 지역과 저지대로 호우 시 도로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우선 설치
 - 이를 위해 하수암거 및 하수역류가 예상되는 원형 맨홀과 저지대 도로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하수도 맨홀 377개소에 대한 사전 조사가 우선 진행



◆ 지자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출처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82401001>

◆ 일자
2022. 8. 24.